

2016ZENKO in 오사카 국제 선언

『테러와의 전쟁』 중지, 군사력 강화가 해결책이 아니다!

글로벌 자본의 빈곤 · 격차 확대를 없애고 개인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자!

‘이슬람 국가’등 ‘이슬람 테러리스트’라는 ‘테러’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희생을 늘려 더욱 증오를 부추기고 폭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원래 ‘이슬람 테러리스트’는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자본주의 각국이 성장했다. 글로벌 자본이 야기한 격차와 빈곤, 전쟁에서 희생되는 시민의 증오가 그 온상이 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자본은 ‘테러’에 대한 분노를 이용하여 배외주의를 강화하고 군사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테러 대책’을 구실로 모든 시민을 감시하고 운동을 봉쇄, 군사력 행사를 강화, 군수자본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북아프리카 · 중동 민주주의 혁명, 스페인 15M 운동, 오쿠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등 각지에서 터져 나온 사회 변혁의 역사적 흐름을 제지하고자 하는 글로벌 자본의 반격이기도 하다. 일본의 아베 내각도 글로벌 자본의 뜻을 받아 ‘대테러 전쟁’에 가담하고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영국 Chilcott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이 국제법상 법적 근거를 채우지 않고 시작된 것을 재차 입증했다. 반전평화운동의 성과다. 부시, 블레어, 고이즈미 등 이라크 전쟁의 주모자 · 가담자들의 전쟁 범죄를 재판하는 것이 폭력의 사슬을 끊는 것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글로벌 자본의 ‘테러와의 전쟁’ 군사력 강화를 중지하고 빈곤 · 격차 확대를 없애고 개인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계 각지의 운동과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실현하는 것을 선언한다.

2016.7.31. 2016ZENKO in 오사카 참가자 일동